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기여도

An Economic Contribution of Housework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조 교수 金貞希

Dept. of Home Management, Andong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 : Jeong-Hee Kim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

〈Abstract〉

The measurement of women's unpaid work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for the improvement of women's status and establishment of a women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housewife and to estimate the ratio to GDP. And to emphasize the political meaning of housework.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monetary value of housework of one housewife in 1995 was 783,050won by opportunity cost method.
- 2) The ratio of household production to GDP in 1995 was approximately 16.5%.

I. 서 론

가사노동도 직업노동과 마찬가지로 자연과 인간의 물질대사의 일환이며 인간노동의 한 형태이다. 직업 노동은 가정에 수입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가계경제의 중심에 위치하지만 가사노동은 그 수입에 의해 구입된 생활수단의 소비과정과 가족원에 대한 서비스

스를 무상으로 행하여 가정의 화폐지출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직업노동 못지 않게 가계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시장참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여성의 가사책임은 별로 감소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집밖에서의 일이란 항상 여성이 책임져 온 집안 일에 부가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졌다. 또한 직업노동을 통한 경제적 기여는 원래의 가사노동을 줄이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못했으며 남성 가장이 가사를 분담하는 문화는 아직 대부분의 사회에서 현저하게 수용되지 않고 있다. 가사노동의 성격 규명과 경제적 가치 인정 여부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동·서양의 관련 학문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대선 공약에 등장할 만큼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는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가사노동의 가치인정을 둘러싼 논쟁의 저변에는 가사노동을 생산노동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와 동시에 가사노동을 화폐적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 및 그 화폐적 가치의 실용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사노동의 화폐적 가치가 산출되어도 현재 국내에서는 재난 발생시 여성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이혼시 부부재산관계에 적용시키는데는 상당한 제한이 있고 다만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 실제 적용한 판례들이 소개되고 있다(박현미, 1998).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국민계정에서의 추계작업이 그 한계였으며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실제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국민계정에 포함시킨 예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다만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주장과 더불어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제시되고 있으며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여성인권의 문제와 인적자본 투자의 관점과 연결시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근간 IMF 관리체제로 들어간지 1년여 동안 개별가계와 기업이 겪은 혼란과 어려움은 매우 컸으며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퇴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자료는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즉 가사노동의 주 책임자는 주부를 비롯한 여성이며 가사노동을 저평가하려는 사회적 의식이 그 노동의 주체인 여성 자체를 평가 절하하는데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비록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와 인정에 대한 논의가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책적인 대안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1994년의 아태여성발전 자카르타선언과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의 베

이징선언에서 가사노동을 포함한 여성무급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와 경제적 기여도 측정을 위한 계획이 수립된 만큼 국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 남녀차별을 최소화 내지 철폐하려는 여성계의 노력과 결실이 IMF 관리체제의 회오리 속에서 퇴보하는 듯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때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생활시간(1995)을 근거로 하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해봄으로써 가사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가시화하고 정책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사노동의 생산적 의미

가사노동의 성격과 그 의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시각에서 전개되어 왔으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충되기도 했다. 가정학과 여성학, 경제학의 입장이 서로 달랐고 가정학내에서도 상반된 견해가 있었으며 근간에도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이나 성격, 의미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홍승아(1998)는 노동력재생산개념에 근거하여 가사노동의 성격을 정의하면서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이 수행되는 실제 사회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두 노동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전체 경제구조가 형성, 유지된다고 하였다. 덧붙여서 현재의 경제구조에서 비가시적인 가족영역 까지 경제적인 영역으로 포함되어야만 가족과 노동시장의 상호연관성과 맞물림의 전체 경제구조(가족·가사노동·경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가사노동을 개인적인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그 의미를 분석해 본 윤숙현과 문숙재(1997)는 가사노동에 대한 제도적 의미를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굳이 다른 어떤 가치로 환원하여 파악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얼마든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관점을 강조했다. 물론 가사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보는 작업이 비인간적이라는 비판도 있었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았지만 가사노동

과 여성노동을 같은 맥락에서 보고자 하는 사회적 시각을 고려해 볼 때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환산해 냈으므로써 여성들의 상해, 재해, 이혼 등의 실질적인 문제에 적용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국민 계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무급여성노동의 대표적 형태인 가사노동을 화폐적 가치로 계량화하고 국민계정에서 측정되어야만 할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의 생산성에 비중을 둔 의미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일찍이 Becker(1965)는 재화와 시간이라는 투입물을 결합시켜서 상품을 생산해 낸다는 가계생산이론을 주장한 바 있고 가정에서 생산한 재화와 용역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다는 할지라도 효용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부가가치를 가지며 단지 화폐로 거래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생산인 것이다(여성백서, 1985). 비시장가계활동, 특히 가내활동에서의 경제적 중요성을 평가하려는 것은 결국 그것이 화폐화된 경제부분의 기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Goldschmidt-Clermont, 1990). 가사노동을 비생산적인 노동으로 보는 일부의 주장도 있으나 현재와 미래에 자신과 타인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용을 창출한다는 점과 임금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서 결과적으로는 교환가치와 임여가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정은 부족한 자원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기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의사결정단위이므로 자원의 제약조건하에서 가정이 도달하려고 하는 표준에 최대한으로 근접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따라서 가사노동은 시장대체가 가능한 노동뿐만 아니라 대체지불이 가능한 노동까지도 포함하여 사용가치를 갖는 생산물을 산출하고 그것을 통해 가정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생산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생산성(family productivity) 개념을 소개한 Rettig(1987)는 주장하기를, 가계생산은 화폐의 교환 없이도 가족과 사회를 위해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서 가계생산의 가장 중요한 산출물은 유능한 인간을 길러내는 사회적 생산성으로 그 유능한 인간은 사회에

대해 하나의 자원이 되며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경제소프트나 경제성장에 인적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홍순영 등(1996)의 연구에서도 국내총생산이 가사를 비롯한 비시장행위(non-market activity)에 의한 소비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가사노동의 가치가 저하되고 노동 담당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대되어 왔고(정영금, 1993) 근대적 합리주의 사고 방식으로 인해 가사노동을 현재의 보편적 가치인 화폐가치로 환원하여 파악하려는 시각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가사노동이 임금노동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윤숙현 등, 1997)는 주장이 있지만 교환의 가치를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지속되어야 하며 그 방법적인 개선과 현실적인 적용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2. 국민계정과의 관계

국민총생산(GNP)은 한나라의 경제활동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이용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것의 성장률이 경제성장률과 동일시되었으나 경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의 경제적 복지척도라는 관점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가정주부가 가족을 위하여 제공하는 모든 가사노동의 가치는 시장을 통하지 않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생산성 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GNP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성들은 인류의 미래인 아이들을 기르고 노부모를 봉양하는 막중한 책무를 떠맡고 있으면서도 시장 가치에 따른 평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만약 가정에 주부가 없다면 단순가사를 맡아줄 사람을 고용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다. 집안 일을 하던 주부가 그것의 상당부분을 포기하고 직장을 구한다면 기존의 국민계정에서는 이것이 국민소득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시간배분의 문제와 사회적 계정체계의 관계를 통해 Juster 등(1991)은 가정생산에 투입된 시간의 가치는 시장에서의 측정을 통해 그 추정치가 국민계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총 산출에 대

한 성장률은 시장과 가계 양 부문에서의 변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사노동이 산출해내는 소득과 부를 무시하는 것이 다양한 경제적 분석영역에서 편향성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을 여러 경제학자들이 지적해 왔으며 동시에 그 개선책을 제시해 오고 있다(Tobin & Nordhaus, 1972; Miller, 1989; Chadeau, 1992).

근간에 국내에서도 국민계정의 개정에 대한 실증적인 논의가 있었다. 먼저 지금의 국민계정에는 들어가지 않는 주부의 가사노동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세계 처음으로 국내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즉 GNP 추계때 생산부문에 넣지 않고 소비부문에서만 따져 온 가계의 경제·사회적 기여도를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인적자원계정(HRA: Human Resource Accounts)」이 바로 그것인데 지난 1996년 유엔이 한국 통계청과 공동으로 개발키로 협의했다.

선진국에서는 네델란드가 독자적으로 비슷한 통계의 개발을 추진중이며 이 지표의 모델개발 국가로 유엔은 한국을 선정했는데(중앙일보, 1996. 4. 8.) 아직 그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개발된다면 가사노동의 화폐적 가치산정과 GNP 산입문제가 보다 더 타당성 있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연구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방법은 아니지만 국민총생산에 대한 가사노동의 화폐적 가치비율을 산정한 연구(김정희, 1996)와 새로운 국민계정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보고서(홍순영 등, 1996)가 있다. 이제 가사노동은 개인 여성의 집안일 성격으로 다루어질 단계는 이미 오래 전에 벗어났다. 가사노동의 가치인정의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해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남은 과제이며 학문적인 성과가 실제 법 적용 상에 연결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문숙재·윤소영, 1997). 일반적으로 국민경제계산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매개로 한 경제행위를 기록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유상노동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무상노동은 경제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대상에는 포함되

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계는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를 스스로의 노동과 결합시켜 스스로가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고 이러한 가계에 의한 비시장생산을 무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미에서는 국민경제계산과는 별도로 무상노동을 화폐평가하고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는 등의 시도(Murphy, 1982; Chadeau, 1985; Goldschmidt-Clermont, 1990)가 이미 실시되어 왔다. 유엔의 사무차장보 겸 여성담당특보인 로사리오 그린은 한 인터뷰기사(조선일보, 1996. 12.)에서 여성의 주류화를 언급하면서 여성의 기여하는 절반의 뜻을 인정받기 위한 선행조치로 가사노동을 GDP에 포함시키는 일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여성들의 가사노동이 전세계 생산량의 40%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대회에서 다양한 문제제기가 행해졌는데 그 중의 하나로서 여성의 무상노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화폐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고 무상노동의 화폐평가에 관한 연구 및 경험에 대한 정보교환을 촉진해야만 한다는 것이 행동강령에 포함되었다. 일본의 경우, 경제연구소 국민경제계산부에서 무상노동의 규모나 연도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무상노동의 범위,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동시에 추계작업을 계속해 왔다. 일본 경제기획청 경제연구소의 「무상노동의 화폐평가에 대해서」(1997)란 보고서에 따르면 무상노동의 범위는 가계가 행하는 활동 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가 분리가능(즉, 그 서비스의 제공을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하고 또한 시장에서 그 서비스가 제공되는 활동으로 했다. 이것은 제3자 기준이라고 하며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준이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소프트화, 인적자본, 그리고 경제성장」(1996)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는 인적자본을 포함하는 국민계정구성에 대해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인적자본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민계정이 개정되어야 하며 시장에서의 거래뿐 아니라 비시장경제행위(non-market activity)도 포함하는 새로운 국민계정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시장경제행위로는 가사노동, 사회봉사활동, 교육, 여가 그 외

식사와 수면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존의 국민계정에서는 소비측면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만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의 소비 또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요리, 청소, 육아 등의 가사노동도 분명 어떤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의 가치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수반하지 않음으로 이를 추계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며 국민계정에 비시장경제행위를 포함시킬 경우 추계상 어느 정도 임의성이 생길 우려는 있다. 그렇지만 가사노동 가치를 GDP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여러 가지 집안 일을 하는 여성과 남성의 자존감을 증대시키며 GDP를 정확하게 산출해낼 수 있게 한다.

3. 가사노동의 화폐적 가치산출에 따른 문제점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에서도 지적할 수 있었듯이 가사노동의 화폐적 가치를 산출하고 GDP와 비교해보는 작업은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항목에서 상당 부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첫째 가사노동의 화폐가치를 산출하는 방법 중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기회비용법과 대체비용법에서 그 근거가 되는 가사노동시간 조사법이다. 가사노동이 다른 노동과는 달리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동시활동을 포함하고 있어서 노동시간계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가사노동영역 및 분류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한국방송공사의 생활시간조사에서 가사노동으로 분류된 내역 또한 학계의 분류방법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덜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예가 충분하지 못하여 누락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무상노동이라는 포괄적인 범주로 넓혀지면 국가별로 그 활동내역이 달라진다. 이는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인식 차이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수치상의 시간량을 놓고 비교하거나 그 시간을 토대로 계산된 화폐액을 비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단 한 국가에서는 시간조사 방법이 단일화되어 있고 이것이 국제간에 통용될 수 있다면 매우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고 비교할 수도 있다고 본다. 둘째 임금체계에 있어서 대체비용법의 경우에는 대체직종 선정과 그에 따른 임금기준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체비용법을 전문가대체비용법과 종합적대체비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문가대체비용법의 경우 가사노동성격상 가사노동영역별로 대체직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것과 기회비용법의 경우에도 여성, 남성, 전체평균 등 그 기준과 임금액에 따라 좌우되므로 일반화된 잣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국제간 비교의 경우 임금수준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그 한계가 있지만 국가별 임금수준과 국민소득수준을 감안하여 비교해 볼 수밖에 없다.

셋째 산출계산법의 문제로서 대체비용법이나 기회비용법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계정에 포함시킬 경우 그 방법의 정교함은 매우 필요한 요소이며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 산출법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 추정되고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4. 가사노동의 정책적 의미

가사노동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여성문제 전반에 관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대로 인정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주부들을 추켜세우는 선에서 공론화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요즈음에 주부들의 노동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의 원천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을 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인정되고 남녀간에 평등한 관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994년 6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2차 여성개발에 관한 아태각료회의에서의 자카르타선언·아태여성발전 행동계획에서 경제의 가사부문에 대한 여성의 기여도 측정을 비롯한 가사부문 내외의 여성노동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과 인식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전략목표로 수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5년 9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는 2000년을 향한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이행상황을 중간점검하고 평가하며 여성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의 분석을 통하여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이며

즉각적인 행동을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많은 세부적인 전략목표가 수립되었지만 경제부문에서 무급노동의 가치평가가 논의되었다. 여성이 어떠한 일을 하든 대부분의 가사의 책임은 여성이 지고 있다. 따라서 무보수노동의 유형, 범위, 분배를 측정하고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부문에서 연구와 경험에 관한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장려하며 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향후 활동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김선숙 등, 1996)에서 제시한 분야별 정책과제를 보면 재정경제원 주도하에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방법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 연구는 다수 있으며(김애실, 1985; 최명숙, 1987; 정영금, 1989; 김선희, 1991; 김정희, 1993) 대 GNP 비율을 추계하여 실제 그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본 연구(김정희, 1996)도 있지만 여성피해자들의 손해배상문제나 이혼시 재산분할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학문적 연구의 차원에서 제시된 수치는 그 조사대상이나 조사방법상에 한계가 있고 객관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극히 저조했다고 보여진다. 판례중심으로 분석해 본 연구들(문숙재 등, 1991; 장영아, 1998; 박현미, 1998)에서 보면 법적 적용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즉 가사노동을 포함한 여성의 기여분에 대해 법은 아내의 기여분을 전혀 무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가 정책차원에서 여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지만 가사노동의 사회적 인정여부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고 학문적 연구가 정책적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미비하다.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여성계에서는 고무적인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동시에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문제도 한층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사노동 정치화의 주장은 국가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문숙재 등, 1998).

III. 연구방법

1. 가사노동시간과 가치

가사노동의 화폐적 가치평가의 선행과제는 가사노동시간 조사이다. 아울러 가사노동의 담당자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키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가사노동을 생산활동으로 간주하여 국민계정에 포함시키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사노동행위를 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지만 가사노동을 주로 맡아서 하는 사람은 여전히 주부이며 남성의 가사노동시간량은 아직은 극히 적으므로(〈표 4〉참조) 본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가정주부로 한정하여 산출해 보고자 한다. 가사노동의 주 담당자인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본 연구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바가 있으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다양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방송공사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시간조사」(1995년) 결과를 사용해 보았다.

국민생활시간 조사(1995)는 전국 100개 지역을 무작위 선정하여 10세이상 전 국민 중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매 15분 간격으로 하루의 활동을 기록하는 시간일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만 시간조사목표가 가사노동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사노동영역 분류가 세분되지 못하고 따라서 가사노동시간 분량이 일반 연구 결과에 비해 적게 나타났지만 조사대상자의 규모나 선정방법에 있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크므로 본 연구에서 시간 자료로 이용하였다. 또한 가사노동의 화폐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적용되는 방법은 크게 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 요구임금법 그리고 주관적 평가방법 등이 사용되었으나 시장노동과의 비교를 위해서 여성평균임금을 근거로 산출하는 기회비용법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종전의 국내·외 연구에서 국민계정을 GNP로 대표하여 비율추정을 해왔으나 다국적기업의 확대와 활발한 국제교류 등으로 국내총생산인 GDP로 대체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GDP를 기준으로 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화폐

〈표 1-1〉 1일 가사노동시간 (도시주부대상)

연구자	임정빈	이정수외	김애실	최명숙	김선희	정영금	한경미	한국여성 민우회	임정빈	이기영외	허경옥	차석란
조사시기 지역	1980 서울시	1984 서울 김제, 이리	1985 서울	1986 대구	1988 부산	1988 서울	1988 광주	1990 수도권	1990 서울	1995 서울, 위성 도시	1995 서울	1997 대전
1일 평균시간	12.0	7.9 7.2	10.4	8.2	7.9	11.1	(6.2)*	5.8	8.5	7.5	7.2	9.4

()* : 취업 주부의 시간

※ 자료원 :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경제적가치평가(김정희, 1993)에서 재구성

〈표 1-2〉 1일 가사노동시간 (농촌주부 및 전국대상)

연구자	권영자	최은숙 외	조희금	농촌진흥청	김양희	KBS	대륙연구소	김정희	허경옥외	한경미
조사시기 지역	1987 전국	1988 전국농가	1988 1989 경북·성주· 영천군	1988 전국농가	1990 전국	1990 전국	1991 전국	1992 대구시 경북	1993 전국	1997 전남 농가
1일 평균시간	3.5	5.4	4.2 4.0	5.2	6.4 (4.5)*	4.8	7.6 (5.4)*	7.8 (6.7)*	5.5	5.1

()* : 취업 주부의 시간

※ 자료원 :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경제적가치평가(김정희, 1993)에서 재구성

가치를 산출할 때는 위에서 제시한 4가지 평가방법들을 모두 적용하거나 최소한 2가지 정도는 적용하지만 생산활동으로 간주하여 GDP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 시장노동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므로 시장임금을 근거로 산출하는 기회비용법을 적용하려고 한다. 따라서 1995년에 조사된 「국민생활시간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회비용법에 의해 가사노동의 화폐적 가치를 산출하고 이를 당해연도 GDP와 비교하여 그 비율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가사노동시간

한국방송공사에서 5년 간격으로 일본과 동일시점에서 조사한 국민생활시간은 1995년에 6차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표 3〉 〈표 4〉 참

조). 개인 연구의 한계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국민생활시간 조사결과를 가사노동 시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자료로서의 타당성을 갖추는데 최선책이라고 생각된다.

〈표 3〉에서 전체평균치는 특정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여 나눈 평균치이며 행위자율이 높기 때문에 행위자 평균시간을 근거로 한다. 또한 평일과 토, 일요일의 시간량이 각각 다르지만 시장노동의 평균임금을 근거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평일의 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2. 가사노동의 화폐가치

(1) 본 연구 결과

가사노동을 화폐가치로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기회비용법을 이용하여 산정해 보고자 한다. 기

〈표 2〉 행동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구체적인 예	비고
가사	취사	부엌일,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먼지털이, 결례질, 쓸기	
	세탁	세탁, 다리미질, 말리기, 빨래 널기	"세탁소에 간다"는 가정잡일로 처리
	재봉 편물	재봉, 짜김기, 손 편물	
	일용품 사기	가사용품 또는 가사에 필요한 물건사기, 심부름	"그냥 돌아다니는 것"은 산책으로 취급
	아이 돌보기	젖주기, 어린이 유치원 보내기, 아이들(초등학교 이하)과의 접촉	
	가정 잡일	가구의 정리, 동사무소 가기, 편지, 가계부, 차 물기, 가족돌보기(어린이, 육아제외), 은행가기, 본조사 설문지 기입	

* 생활시간기입지의 행동분류 중 가사에 해당하는 내용만 별췌함.

〈표 3〉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

(단위 : 시간, 분)

구 분	평 일	토曜일	일요일
전체평균시간	5.36	5.22	4.06
행위자평균시간	5.40	5.26	4.19
행위자율(%)	99.0	98.7	94.9

* 직업분류상 주로 가사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으로 설명됨.

〈표 4〉 성별가사노동시간

(단위 : 시간, 분)

구 분	평 일	토요일	일요일
남 성	전체남성	0.14	0.25
	성인남성	0.17	0.27
여 성	전체여성	2.23	2.27
	성인여성	3.07	3.06

회비용법은 주부가 취업할 경우에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소득을 가사노동의 화폐가치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취업주부들이 시장노동을 통해 국민계정에 기여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고려하자면 기회비용법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 산출과정과 방법

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사용된 모든 통계치는 1995년의 자료를 사용했고 다만 참고자료로 1997년의 경제통계연보를 이용했으며 구체적인 자료원은 〈표 5〉의 하단에 함께 제시되어 있다.

①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종사 여성 수: 6,167,000명

② 전 직종 여성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text{월 급여총액} + \text{연간 특별급여액}/12$$

$$723,680(\text{원}) + 2,199,887(\text{원})/12(\text{개월}) \approx 907,000\text{원}$$

③ 여성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

$$\text{월 평균임금} \div \text{월 총근로시간수} 907,000(\text{원})$$

$$\div 200.7(\text{시간}) \approx 4,519\text{원}$$

④ 주부 1인의 가사노동의 월 화폐가치:

$$1\text{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text{여성 시간당 평균임금} \times$$

$$30.4\text{일} = 5.7(\text{시간}) \times 4,519(\text{원}) \times 30.4(\text{일}) \approx$$

$$783,050\text{원}$$

⑤ 주부 1인의 가사노동의 연간 생산가치:

$$783,050(\text{원}) \times 12(\text{개월}) = 9,396,600\text{원}$$

⑥ 국내주부의 가사노동의 연간 생산가치:

$$9,396,600(\text{원}) \times 6,167,000(\text{명}) = 57,948,832,000,000(\text{원})$$

$$(57조 9천 4백 88억 3천 2백만원)$$

⑦ GDP(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율:

$$57조 9천 4백 88억 3천 2백만원 \div 351조 9747억원$$

$$(95년 경상GDP) \times 100 \approx 16.5\%$$

⑧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783,050(\text{원}) \div 1,911,100(\text{원}) \times 100(\%) \approx 41\%$$

참고로 우리나라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 연구에서 기회비용법에 의한 결과는 <표 6>과 같은데 조사시기, 지역별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2년 경상 GNP에 대한 비율 추정을 한 김

정희(1996)의 연구결과 기회비용법에 의해서는 35.66%로 산출되었다.

(2) 타 연구 결과와의 비교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1996)에서는 비시장노동행위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국민계정을 재구성해 보았다. 그 중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부분만 빌췌해보면 가사노동과 여가를 합한 가치가 1994년에 304조원에 이르러 기존의 GDP인 306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가사와 여가 등의 가치가 기존의 국민소득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근로시간이 우리나라보다 짧고 가사노동시간도 평균적으로 짧지만 여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가사노동의 가치만 별도로 살펴보면 <표 7>에서 보듯이 1994년 기준 58조원 정도로 당해연도 GDP의 19% 수준이었다.

일본의 경우 경제기획청 경제연구소의 보고서(1997)에 따르면 무상노동을 기회비용법과 대체비용법으로 평가하여 그 가치를 추계해 보았으며 1991년 기준 무상노동의 평가액은 67조엔~99조엔으로 GDP의 14.6%~21.6%의 규모였다. 이를 임금노동의 봉급과 비교해 보면 31.4%~46.6%의 수준에 해당한다.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기 위해서 기회비용법에 의한 결과만 정리해보면 <표 8>과 같다.

<표 5> 국내 주부의 가사노동의 화폐가치 및 대(對) GDP비율(1995)

주부 1인의 월 화폐가치액	783,050원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41%
국내주부의 연간 화폐가치액	57조 9천 4백 88억 3천 2백만원
대(對) GDP 비율	16.5%

* 자료원 : 「국민생활시간조사」 한국방송공사, 1995

「도시가계연보」 통계청, 1995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1995

「경제통계연보」 한국은행, 1997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노동부, 1996

〈표 6〉 우리 나라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月 기준)

	김애실	최명숙	김선희	정영금	대륙 연구소	김정희
조사시기, 지역	1985 서울	1986 대구	1988 부산	1989 서울	1991 전국	1992 대구, 경북
대상자수	66명	161명	572	477	취업: 640 전업: 860	취업: 418 전업: 397
기회비용법	371,094	397,864	417,499	529,941	441,988	638,100

※ 자료원 :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경제적 가치평가(김정희, 1993)에서 재구성

〈표 7〉 가사노동의 가치(경상가격)

(단위 : 천억원, %)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현행의 GDP (A)	2,157.3	2,403.9	2,671.5	3,059.7
가사노동의 가치 (B)	404.9	462.7	520.5	580.5
B/A	18.8	19.2	19.5	19.0

※ 자료원 : 「소프트화, 인적자본, 그리고 경제성장」(삼성경제연구소, 1996)

〈표 8〉 평가액과 대 GDP 비율

(단위 : 10億円, %)

	1981	1986	1991
GDP	257,962.9	335,457.2	458,299.1
가사노동의 가치 (기회비용법)	53,264	71,828	98,858
GDP比	20.6	21.4	21.6

※ 자료원 : 「무상노동의 화폐평가에 대해서」

(일본경제기획청 경제연구소, 1997)에서 재구성

V. 결론 및 제언

비록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노동참여의 수준을 적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들이 하고 있는 일의 많은 부분은 여성 자신들에 의해서 조차도 경제활동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공식적인 자료로 보고되지도 않고 있다. 여성의 경제적 기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개선에 관한 문제점은 일과 경제활동에 대한 현재의 개념과 정의에 대

한 시각을 바꾸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재정의하고 이같은 기여를 포착하여 통계상 적절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성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과소평가 되었고 따라서 공식적인 자료는 여성관련 정책, 계획,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완전하지 못한 기초를 제공한다. 보고되지 않고 수량화되지 않는 점은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비공식부문에서 심각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주담당자인 주

부의 가사노동이 국가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를 추정해 보고 이러한 추정작업이 단순히 연구자료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 및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 져야 할 과제임을 제시해 보고자 했으며 그 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5년 국민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을 기회비용법에 의해 화폐가치로 환산해 보면 주부 1인의 월 화폐가치는 783,050원이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에 종사하는 모든 여성의 연간 가사노동가치는 57조 9천 4백 88억 3천 2백만 원으로 계상되었다.

둘째, 1995년 경상 GDP에 대한 비율을 추정해 본 결과 약 16.5%로 1994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인 19.0%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이는 대상자의 범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즉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는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로 그룹화하여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에 주부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보다는 수치가 높게 계산된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또한 1991년 기준 일본의 경우 21.6%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 또한 전체 남녀를 대상으로 한 점과 기회비용법에서 적용되는 임금수준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지난 제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시간으로 국민생활시간조사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여 시간조사상의 정교함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개인연구자가 전국적인 시간조사를 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므로 지역적인 시간조사결과로 일반화하기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면도 있다고 하겠다. 가사노동의 하위영역이나 시간조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관된 분류체계가 개발되고 동시에 시장노동에서의 대체직종선정에 대해서도 관련 학계와 정부기관에서 통일된 자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주부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가사노동가치를 환산하고 GDP에 대한 비율을 추정해 보았는데 국내총생산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누락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가사노동을 주로 맡아서 하는 사람이 가정주부이므로 그 대

표성을 지닐 수는 있지만 남성을 비롯하여 가사노동자의 대상범위를 선정하는 것과 그 대상자들에 대한 총 가사노동가치를 산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나 개인연구자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제는 이러한 작업이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관련 여성부처를 중심으로 여성의 무보수 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이 행해지고 있지만 좀더 박차를 가하여 전국 규모의 조사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영자(1995).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 47호.
- 김선옥·윤덕경(1996). 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이 행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선희(1991).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애실(1985).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여성연구.
- 김정희(1993).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경제적 가치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1(4).
- (1996). 주부의 가계생산의 규모와 GNP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1).
- 노동부(1996).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문숙재·윤소영(1997). 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영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 (1998). 가사노동의 정책과정개발에 관한 연구 I: 가사노동의 측정을 위한 제안. 대한가정학회지 36(4).
- 문숙재·정영금(1991). 주부의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액 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4).
- 박현미(1998). 재난 발생시 여성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이기영·이연숙·김외숙·조희금(1996). 한일 양국 간 도시 부부의 생활시간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 윤숙현·문숙재(1997).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와 제도적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
- (1997). 가사노동에 관한 인식의 변화

- 고찰. 한국가정학회지 15(3)
- 장영아(1998). 부부재산관계판례에 나타난 여성노동
의 기여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정영금(1997). 가사노동가치인정을 위한 정책적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 정영금·문숙재(1998). 여성정책적 측면에서 본 가정
노동지원. 대한가정학회지 36(10)
- 차성란(1998). 서울시와 대전시 거주부부의 성역할태
도와 가사노동시간. 대한가정학회지 36(5).
- 통계청(1995). 도시가계연보.
- _____. (1995). 경제활동인구연보.
- 한국방송공사(1995). 국민생활시간조사.
- 한국여성개발원(1995). 제2차 여성개발에 관한 아태각
료회의 자카르타선언. 아태여성발전행동계획.
- _____. (1996). 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이행을 위한 정
책과제 연구.
- 허경옥·김인숙(1996). 농가 주부의 시간배분 연구:
가정생산 이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 홍순영·조달호·임지원·김종훈(1996). 소프트화, 인
적자본 그리고 경제성장. 삼성경제연구소.
- 홍승아(1998). 가사노동의 성격에 대한 연구-노동력
재생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
(2).
- Becker, G.S.(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299.
- Chadeau, A.(1985). Measuring household activities:
S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Review of In-

come and Wealth 31/3.

- _____. (1992). What is household's non-market produc-
tion worth? OECD Economic Studies No.18.
- Eisner, R.(1988). Extended accounts for national
incomes and produc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 Feinberg, R.A.(1996). A short note on why the issue
of household work is important socially,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Family and Con-
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4/4.
- Goldschmidt-Clermont,L.(1990). Output-related evalua-
tions of unpaid household work. Home Econom-
ics Research Journal 129/3.
- _____. (1990). Economic measurement of non-market
household activities, is it useful and feasible?.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29/3.
- Juster, F.T. & Stafford, F.P.(1991). The allocation of
time: empirical findings, behavioral models,
and problem of measure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 Murphy, M.(1982). The value of nonmarket household
production: opportunity cost versus market cost
estimat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28/1.
- Rettig, K.D.(1987). Household production: beyond the
economic perspectiv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1.
- 日本 經濟企劃廳經濟研究所 國民經濟計算部(1997).
無償労動の貨幣評價について.